

포교인력 적재적소 활용 '기대'

조계종 '포교센터' 개설 의미와 과제

수요-공급개선... 자질함양·전문화 필요

수도권만 운영 '한계'... 권역별로 확산돼야

조계종이 82년 이후 배출한 포교사는 2천5백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포교사는 고급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종단 차원의 관리가 부재했다. '각자 알아서' 하는 식이었다.

예초 조계종은 포교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스님들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재가 포교사 배출을 시작했다. 포교대상인 일반대중과 생활상의 정서가 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배출만 했을 뿐 활용은 못했다'는 비판적 결론이 지배적이다.

포교사단이 운영키로 한 포교센터는 그동안 배출만 했을 뿐 활용하지 못한 포교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포교사 관리의 부재가 포교현장의 황폐화를 불러왔다는 그간의 지적을 감안하면 포교센터의 운영은 포교의 질적 양적 팽창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포교센터는 포교사를 원하는 곳에 포교사를 공급하는 포교사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신입재사자 정신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필요하다는 수원교도소의

요청에 따라 4명의 포교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또 포교사 관리에 종단이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몇 가지 지적된다. 우선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합당한 포교사를 어떻게 추천하느냐는 문제다. 포교사로 임용은 했어도 해당 포교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질을 갖췄느냐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포교사 임용 때와 1년에 두차례 열리는 포교사 연수회에서 인적사항과 포교활동 계획서 및 포교활동 보고서를 서면으로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은 없다.

'포교센터'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포교사의 전문화가 필수다. 장애인포교나 군포교·어린이포교 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포교인력이 적재적소 배치되어 포교능력을 극대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교원은 향후 포교사 배출제로 자체를 수정해 포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전문분야의 활동력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교사단은 전문포교사 위촉을 통해 자질을 함양하고 포교 열의를 함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강의와 토론 현장견

학, 숙박교육 등 4차례의 교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화도 시급하다.

포교센터가 서울 중심의 수도권지역에 한정해 운영된다는 한계도 있다. 포교사단은 서울·경기, 대전·충청, 부산·경남, 전주·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 6개 권역에 포교사지단이 결성되어 있다. 포교사단은 "현재의 역량으로는 전국을 관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모범사례의 창출을 통해 전국 확산을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신도조직화 '실천없는 메아리'

조계종 중앙신도회 '한 일 없는 1년'

사업계획 못세우고 회장 사퇴설마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창립된 지 15일로 1주년을 맞았지만, 축제분위기는 커녕 중앙신도회가 있는지 묻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신도회 결성에 같이 참여했던 한 재가불자는 "중앙신도회의 1년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다"는 말로 중앙신도회의 1년을 평가했다.

중앙신도회가 창립된 지난해 이맘 때 불자들은 재가신자의 조직화가 촉진되고, 신생활의 사회적 회향을 통해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창립 3개월이 지나서야 첫 운영위원회회를 열어 부회장단을 구성하는 등 출발부터 더딘 발걸음을 보였다. 이때부터 인선을 놓고 총무원과 중앙신도회의 불화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신도교무부의 관리를 중앙신도회가 요구한 것이 불화설의 표면적인 이유였고,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1년을 보냈다. 작년 12월에는 회장이 소집해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승인할 정기대의원총회도 열지 못했다. 운영회의를 열어 예산과 사업계획을 세웠다.

최근에는 임기 2년중 1년만 채우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송재건회장의 거취문제가 또다시 불거져나와 더욱 어수선하다.

송회장은 지난 3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사회의사를 밝히고 부회장 중에서 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부회장들은 현 회장이 계속 맡아야 한다며 일단 만류하는 선에서 일단락했다. 한 회의참석자는 "송회장은 총무원의 비협조를 매우 섭섭해 했다. 사회의사가 강한 것 같다"며 송회장의 심정을 전했다.

총무원은 내심 송회장이 사회의사를 직접 밝혀오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호근·안동일씨 등 부회장의 이름이 차기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도 총무원의 입장과 무관치 않은 것이며, 이는 초파일을 앞두고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으므로 회장대행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풀이다.

재가불자 공동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중앙신도회는 교계언론으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했다. 단지 회장 사퇴문제가 언급됐을 뿐이다. 그만큼 중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흘러보낸 1년이였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사회문제와 총무원-중앙신도회의 불편한 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신도조직화와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불자상 정립에 나서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포교에 매진해 온 도심포교인들이 IMF정기회로 총체적 경영 위기에 놓여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포교당 법회장면

IMF영향 신도·시주금 '절반으로' 실적자법회등 포교전략 구상해야

도심포교당 운영난 원인파 대책

국제통화기금(IMF) 파고에 도심포교당들이 최초의 위기에 놓여 있다. 경제난국속에서 신도수와 시주금이 갈수록 격감됨에 따라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담의 원력하나라도 도심속에서 동지를 들고 포교활동을 펼쳐 온 포교당들, 그러나 IMF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무중지대일 수 없는 실정.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개설 5년 안팎의 포교당은 충격이 더욱 크다. 경제난이 장기화되면 도심포교당들의 설자리조차 없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도심포교당들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원초기부터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황무지나 다름없는 도심속에서 분분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적은 시주금으로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등을 비롯 각종 세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IMF상황이 운영난으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도심포교당들이 IMF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는 신도들의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들 대부분이 도심포교당보다는 산사의 분위기를 선호해 발길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포교당 신도는 모일 때는 낯설지만 쉽게 쌓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어진다"는 한 포교원님의 경험담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한편 도심포교당들이 총체적 경영위기에 처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포교당들보다는 사주나 관상, 천도제 등 기복위주의 운영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단이나 대규모 사찰차원의 지원, 포교당스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포교당들도 실적자법회 등 위한 법회나 기도회 등 사대흐름에 맞는 포교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김종근 기자

"이 책과의 인연공덕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올해 80세인 노보살님은 최근 출간된 <생략속의 불법수행>에 이런 발원을 담아 법공양을 했다. 대중의 갖가지 의문을 풀어주는 대령스님의 법어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다. 이 책을 보시 받은 한 불자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전했다.

"항기로운 선불 잘 받았습니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법문은 법보(法寶)로서 깨달음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다. 법공양은 사람들 법의 공간에 들게 하여 결국은 진리에 눈뜨게 하는 전법이다. 우리는 그래서 법공양을 공양종의 으뜸으로 꼽는다.

부처님께서도 여러 경전에서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수미산왕 만한 철보의 무더기를 보시한다해도 경의 사구계를 수지독송하여 다른 사람에게 잔한 복덕에 도저히 미칠 수 없다고 일러주셨다.

돈과 보물에 눈먼 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법이 널리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가르침대로 살게되면, 그때 그곳은 정토다. 따라서 법공양은 법의 항기로 예

토를 정도로 가꾸는 불사다. 작은 불서 한권이라도 나눠 읽는 일은 그래서 소중하고 또 소중하다.

요즘 '출판계를 살리자'는 소리가 나라안에 가득하다. 대형 서적도대상의 부도로 출판계가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출판은 지식산업이다. 출판문화의 발전없는 지식과 정보시대인 21세기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출판계는 이러한 명분아래 정부에 긴급

자금 5백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원력으로 일

해 온 불사출판사들도 타격이 크다.

불사출판사 활성화를 위한 교계의 자구책은 없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1천만 불자를 독자화하는 길이다. 만약 1천만 불자중 절반인 5백만명이 매월 불서 1권씩을 사서 읽거나 법공양을 한다면 1년이면 6천만권을 유통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민이 불사와 만나는 인연 공덕을 짓고도 1천5백만권이 남는 숫자다.

지금부터 불자들은 수시로 항기로운 선물을 나누자. 자신부터 항기로우길 것이다.

목어

항기로운 선물

해 온 불사출판사들도 타격이 크다. 부처님께서도 여러 경전에서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수미산왕 만한 철보의 무더기를 보시한다해도 경의 사구계를 수지독송하여 다른 사람에게 잔한 복덕에 도저히 미칠 수 없다고 일러주셨다. 돈과 보물에 눈먼 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법이 널리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가르침대로 살게되면, 그때 그곳은 정토다. 따라서 법공양은 법의 항기로 예

"1심인당-1복지시설 운영"

수요 인터뷰

진각복지회 상임이사 회정 정사

1990년부터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복지사업을 준비해 온 진각복지회 상임이사 회정정사(진각종 총무원장)를 만나 운영계획을 들었다.(편집자주)

- 진각복지회 설립 목적과 사업목표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진각종은 종단 내실을 다지는 시기였다던 이제는 사회에 환원할 때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방법이 바로 사회복지 사업이죠. 복지사업은 포교·교육사업과 함께 종단 3대 사업

수련원·실버타운 건립 국제구호사업도 계획

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4년여 전부터 본격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고, '준비된 재단'으로서 위상을 갖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주로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이미 단기 및 중·장기사업으로 복지사업 분야를 분류, 연차적으로 추



진해 나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 위탁운영에서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 불우이웃 결연 및 후원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 자원 조사·연구 및 개발은 물론이고 청소년 수련원 및 실버타운 건립, 장묘사업,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복지사업운영의 종단적 방침은?

▲모든 복지시설을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심인당 1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진각복지회 운영도 지금은 종단 교역자 중심이나 향후에는 경제적 여유와 복지사업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사로 대폭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불행포를 위한 복지사업 계획도 있으십니까.

▲물론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5년 내에 UN국제구호기구 가입을 목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사위기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불행포 지원이 우선일 것이며, 종단 내부적으로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필선 기자

사부 대중에게 드리는 글

- 우리의 입장 -

• 다 음 •

해인사를 아끼는 사부대중 여러분!

해인사 각 문종의 재적승으로 구성된 '해인총림문중협의회'와 해인승가대학 동문들로 구성된 '상림회'는 작년(1997)년 가을부터 1,000평 가까운 대규모 성철 큰스님 사리탑을 조성하는 일, 사기성 계약을 맺고 600억원대의 납골당을 가야산에 건립을 추진했던 문제, 400억원대의 대규모 불교문화단지 조성불사(박물관, 만불전, 대불, 연수원, 연구소등)를 타당성 검토없이 졸속하게 추진하는 점,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1년이 넘게 추진되어 발주단계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하는 일 등을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총무소는 이를 고압적으로 묵살하면서 무리하게 계속 각종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고 동조하는 말사주지에게는 인사압력까지 넣는 부당한 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급기야 총무소측은 최근 3월 6일 오후 총림문중회의를 가진 뒤 결의문을 채택하여 저번에 이를 전달하려 간 대표 방문단을 해인사를 점거, 접수하러 온 폭도로 규정하여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 한 스님을 중대에 빠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해인사는 지금 가야산을 훼손하여 경제수익을 앞세우는 대형개발불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연환경을 수호하고 수행과 교육을 중시하는 청정수행도량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여 주시고 해인사가 명실상부한 모범적 수행도량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현재 강행중인 대규모 성철큰스님 사리탑공사를 중지하고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해인사 전체의 비림(碑林) 조성계획을 수립 후 공사를 진행하라.
2.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불교문화단지조성불사(박물관, 만불전 등)의 타당성 검토와 전통사찰의 조형에 맞는 건축을 위해 대중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 중지를 위해 해인사 총무소는 적극 대처하라.
4. 대중공의 수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인총림 임회를 확대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5. 이번엔 참혹한 폭력행위를 한 당사자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 중헌 중벌에 의한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을 요청한다.
6.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거부하며 평화적 토론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인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기 2542(1998)년 3월

해인총림문중협의회 상림회